



제주 관음사는 3월 11일 제주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를 열었다. 이날 1천여 조계종 제주 불자들은 10km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생명과 나눔결사로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를 발원했다.



이호해수욕장에서 순례 마무리 행사로 열린 방생법회. 광어 치어 등 2000여 마리를 방생했다.



탐동공원에서 열린 제주불교 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에는 제주지역 조계종 사찰 20여 곳이 참여했다.



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 회향 방생 법회

“제주서 부처님 법따라 걸어요”

“미래로! 세계로! 희망제주! 걸 따라 순례단! 한라산 관음사 파이팅!”

순례단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한 순례단의 행렬에 날씨는 짓웃음을 머금어 왔다. 순례도중 진눈깨비가 날릴 만큼 험한 3월의 날씨에도 순례단은 묵묵히 묵인 수행하며 길을 걸었다. 제주 경찰의 통제 하에 길게 장사진을 늘어난 순례단의 모습에 바빠 지나가던 제주도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동참했다. 5시간 여의 긴 순례는 이호해수욕장에서 방생법회로 마무리됐다. 순례단은 이호해수욕장에서 광어와 자리돔 등 치어 2000여 마리를 방생하며 생명결사의 길에 동참할 것을 서원했다. 이어 순례단은 4월 중순 제주 약천사가 위치한 서귀포 일대에서 2차 순례를 봉행하기로 하고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산티아고 길’. 프랑스 생장피드포르에서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 거리의 성지순례 길이다. 걸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도보여행가나 배낭여행족 등이 즐겨 찾는 길로 1993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서점가에서 산티아고 여행에 관한 책을 찾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제주도에도 산티아고 길처럼 멋진 풍경, 그리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성지를 찾아 걷는 순례길이 열렸다. 제주 관음사(주지 성효)는 3월 11일 제주 탐동광장에서 이호 해수욕장까지 약 10km에 걸친 제주 길따라순례단 창단 기념 첫 순례를 봉행했다.

제주 관음사 '길따라순례단' 창단, 사찰 인근 돌레길 돌며 行禱 매달 포교결집대회 겸해 정례회,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한마음

‘제주불교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로 열린 이날 순례행사에는 1000여 대중에 참석해 곳은 날씨와 거센 파도가 치는 해안길을 힘차게 걸었다. 길따라순례단은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이 총재를, 고우방, 최정희 씨가 단장을 맡았다. 길따라순례단은 매일 한차례씩 제주 지역 사찰과 유적지, 올레길, 주요 관광지 등을 도보로 순례하며 순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108참회 등도 겸해 제주포교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성효 스님은 먼저 고불총림 백

양사 방장 수산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성효 스님은 이어 “제주도의 사찰과 연계된 올레길을 순례하며 제주불교의 발전을 다지며 순례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했으며 길에서 돌아가셨다”며 “길을 걷

는 것은 행선으로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혜인 스님은 “화엄경 53선지식을 찾아간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가장 먼저 만난 선지식도 바로 바다의 지혜를 가진 해운 비구였다”며 “우리로 부처님처럼, 또 선재동자처럼 길을 걸으며 부처님처럼 살길 기원하며 한결음씩 내딛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혜인 스님이 끝으로 서산 대사의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걸지말라, 오늘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이

정가 될 것이리라’는 해탈시는 대중에게 하나의 화두로 내려졌다.

순례단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순수한 목적으로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제주불교,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걸어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이런 순례단의 서원에 불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창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순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정인숙(51세) 씨는 “추운 날씨지만 부처님 법을 따라 걷는다는 생각이 환희심이 절로났다”며 “불교대학에서 교리를 배우는데 매달 순례에 동참해 봉사활동도 함께 하며 불교홍포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 천왕사 주지 향운스님, 천왕사 주지 지효 스님, 보현사 주지 할결 스님,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우근민 제주도지사, 강창일 국회 정각회 부회장, 김우남 국회의원, 오홍식 제주도정 반야불자회장, 붓다클럽 송원식 총회장 등 1000여 제주 불자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순례가 가진 생명·나눔 의미 되살릴 것”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자를 비롯한 도민들의 화합된 힘이 먼저입니다. 순례가 가진 생명과 나눔 결사의 참 의미를 살려 제주화합과 제주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본사 주지 부임 3개월 만에 순례단을 창설한 성효 스님(사진)은 복지,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불교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성효 스님은 “석달간 제주도에서도 젊은 불자들이 사라지고 이종종교에 교세가 밀리는 것을 지켜보며 조계종 구분사 주지로서 책임을 통감했다”며 “제주 불교의 역량을 한군데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4·3 사태 이후 제주도민과 불자들의 단합된 운동이 드물었다는 점, 관광자원화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현시정황을 고려해 성지순례 운동을 표기로 기획했다.

성효 스님은 “대규모 제주도민이 함께 한뜻으로 운동을 펼치는 것도 최초로 알고 있다”며 “성지순례길에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봉사활동 등도 겸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교구분사로 역할을 하지 못한 관음사가 주축이 돼 조계종 종단이 제자리에 선다는 의미도 있다”며 “제주도 조계종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 포교활동을 체계화 하는 기회로도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스님은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총선을 앞둔 선거전으로 인해 제주 민심이 갈등을 겪고 있다. 순례를 비롯한 여러 운동을 통해 제주민심이 다시 하나로 뭉쳐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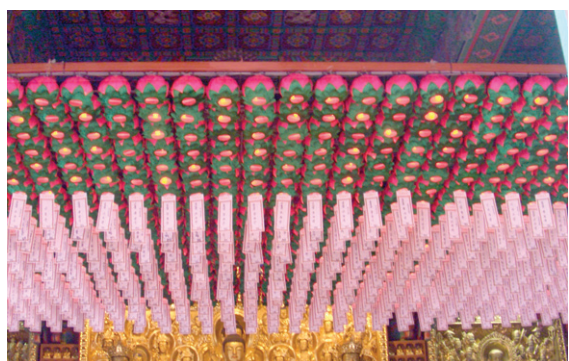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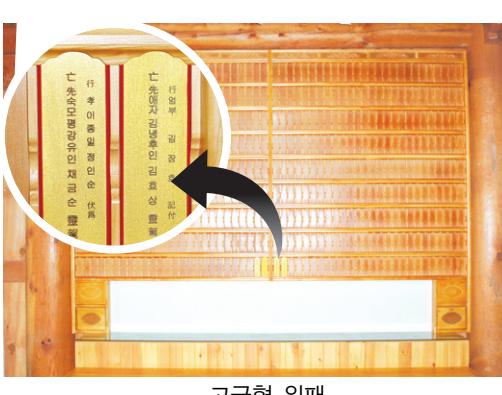
운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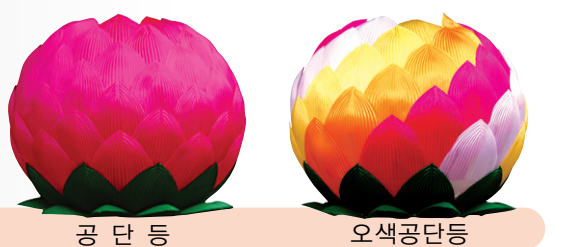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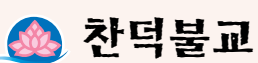


만 월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자기료: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